

조선 후기 조각승 계보 발견했다

문명대 교수,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세미나서 공개... 쌍계사 불상 복장조사 결과



“삼세불상 출토 유물에서 조각승 출현이란 조선 후기 불교미술 계보 파악이 가능하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사진)는 6월 18일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충남 논산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상 복장에서 조각승의 계보를 파악 가능한 발원문 등 조선 시대 중·후기의 불교미술 발달사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출토됐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상 중 아미타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은 두루마리에 적힌 불상 발원문과 <묘법연화경> 등 조선 전기 전적(典籍)류, 오곡(五穀)·오약(五藥)·사리 2과를 넣은 후령통, 직물 등이다.

특히 복장유물 중 발원문에는 ‘선조 38년 3월 자비승영관비구가 뛰어난 장인을 청해서 만들기 시작해 7월 조성을 마쳤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문명대 교수는 “삼세불상은 김해 선지사 불좌상, 익산 관음사 보살입상, 익산 해봉원 보살입상, 위봉사 보살입상 등을 조성한 원오(元梧)와 그 유파들이 7년의 임진왜란이 끝나자 웅장한 대웅전과 불상을 중창한 예로 중요시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진왜란 직후 원오계의 작품들은 여러 예가 발견되고 있지만 쌍계사 삼세불상은 가장 큰 작품으로 대표적으로 볼

탕으로 새로이 조성한 불상으로 조선 전반기의 불상양식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교수는 원오의 스승인 석준과 원오에서 이어진 석준·원오과 조선 후반기 최대 조각 유파를 형성했다는 사실에서 주목했다.

문 교수는 “석준에서 원오, 다시 17세기 최고 조각승인 무명, 그리고 청허로 사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에서 출토된 유물들

범연화경) 권 5·6·7은 보물 1306호인 <묘법연화경>의 원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교수는 “묘법연화경 권7 말미에 발문이 있는데 원주인 성달생의 책의 간행 시기는 1402~1410년 중 어느 때로 추정된다. 현재 보물 제1306호 범화경 원판본이 1405년 간행됐으므로 1405년의 원판본으로 판각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 쌍계사는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에 위치한 대찰격의 고찰로 그 주위에 백제 계백과 후백제 견훤의 묘가 함께 있어 백제의 중심사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노덕현 기자

해남 서동사 삼불좌상 보물 지정 17세기 중엽 수화승 운혜의 대표작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등 3건의 문화재를 6월 22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 제1715호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석가·약사·아미타여래의 공간적 삼세불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삼불좌상으로 17세기 중엽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운혜(雲惠)를 수화승으로 해서 제작됐다. 운혜가 만든 불상의 특징은 작은 얼굴에 입술의 양 끝을 강조해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표정을 한 점과 두터운 대의, 그리고 부드러운 면서도 넓은 어깨와 무릎, 파도치듯 주름잡은 입체적인 옷주름이다. 이후 운혜의 불상은 얼굴이 커지고 다소 딱딱해지는 변화를 보이지만 운혜풍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얼굴표현을 보인다. 서동사 삼불좌상은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초기적 경향을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조동섭 기자

<학술단신>

■ 동국대 BK21연구단, 전자불전 해외석학 강연회 개최

세계 불전의 전산화 현황과 발전 방향을 짚는 자리가 마련된다. BK21세계화시대를 선도하고 학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은 6월 30일 오후 2시 동국대 사회과학관 11호에서 초청 강사는 매커스 빙겐하이머(Makus Bingenheimer) 박사를 초청해 BK21 해외석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대만 법고대학의 도서정보센터 책임자인 매커스 빙겐하이머 박사는 이날 ‘불교학을 위한 전자불전의 조성 및 발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만해마을서 종교문화탐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윤승용)는 7월 17~18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6차 종교문화탐방을 개최한다. 7월 17일에는 ‘만해선사와 무능거사의 서로 다른 삶의 궤적-불교유신론과 불교통사론을 중심으로(진철승 연구원)’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법인 창립 10주년의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며 18일에는 아침에불과 돌래길 산책으로 탐방이 마무리된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문연 중점연구소 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중욱) 중점연구소는 6월 24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아시아 근대불교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주제로 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기은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대 불교잡지를 통해 본 수양론 양상’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출가, 탈권력의 사제동행(師弟同行)-구라타 하쿠조(倉田百三)의 <스님과 그 제자(出家とその弟子)>를 중심으로’, 김진두 동국대 연구교수의 ‘중국 근대 인간불교에 나타난 유불융합의 경향’, 김중욱 동국대 교수의 ‘내서널리즘과 화엄적 민족주의’, 해원 스님의 ‘근현대 한국비구니 선원정규의 변용’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금강대 17회 HK콜로키움 개최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소장 김천학)은 7월 6일 오후 1시 30분 논산 금강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국과 티베트의 불교’를 주제로 제17회 인문학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최은영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가 ‘길장의 문헌에 보이는 진제의 영향 검토’, 한지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가 ‘양주(涼州) 불교사상과 문화의 발전사 고찰’, 양오영 인도 델리대학교 박사가 ‘성불이란 무엇인가? -색신 성취의 수행방법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차문화 발전 위해서는 인문학자 포섭해야

한국차문화학회, 학술대회서 현대 차문화 현상 학술적 조명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여연)는 6월 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차문화의 인문학적 지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차문화계가 문화를 활짝열고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성태용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식생활 등의 양상이 바껴 차문화가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차문화의 중흥기다”며 “이런 중요성에도 차문화계에서는 차인들끼리 서로 이합집산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성 교수는 “차인들끼리 그렇게 경쟁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특히 차 애호가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문학 관

계자와 문화관계자들을 적극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인문학계와 차문화의 접합을 주장한 이유는 두 분야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인문학과 차는 차문화가 고급문화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 흥망성쇠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켄음료식의 차문화와 자위행위식으로 자신을 뽐내는 귀족 차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체 평행선을 이루며 달려간다면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제 자리를 찾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차문화학회장 여연 스님도 차문화의 문호 개방에 대해 언급했다. 스님은 ‘오늘 과연 우리는 초의의 차를 마시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서 “초의차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

을 향한 차의 참정신”이라며 “근래에 들어 이런 차의 정신이 많이 퇴색돼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여연 스님은 차문화 확산을 위해 차인들이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차문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기정 목포대 교수가 ‘중국다도의 형성과 변천 고찰’을, 신미경 성신여대 교수가 ‘조선시대 차문화의 재조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학술대회와 함께 마련된 2011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에서는 차 재료 및 제품, 다구, 공예 등 차문화 관련 상품이 전시됐고 부대행사도 이효재의 차놀이 강의, 대한민국의차문화대회, 꽃차품평회, 녹차급식 세미나 등이 이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석굴암 복원 다시해야

한국 고건축학과 고고학 제1세대의 대표로 꼽히는 창산(昌山) 김정기(金正基, 81) 박사는 최근 ‘석굴암 복원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역임한 김 박사는 “석굴암이 잘못 복원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몇 없다. 죽기 전 원 상태로 복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구체적으로 석굴암 전실 입구 쪽 신장상(神將像) 2구가 원래는 본존불을 바라보면서 90도로 꺾여 있었지만 1961년에 복원하면서 전실에 목조건축물을 지을 공간을 확보하고자 일렬이 되게 나란히 펼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 외에도 문제 제기가 잇따른 자 문화재청은 석굴암에 대한 종합학술을 준비 중이다.

문화재청은 석굴암 전반 문제를 다룰 학술 용역을 2012년 발주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